

정 공청 장군 유품에 대한 연구

A Study for the Armor of General Jung, Gong-chung

수원대학교 생활과학대학 의류직물학과
부교수 배 상 경

Suwon Univ., Col. of Human Ecology Dept. of Clothing & Textiles
Associate Professor : Bai, Sang-kyoung

〈목 차〉

- | | |
|-------------|--------------|
| I. 서론 | III. 결과 및 고찰 |
| II. 보존처리 과정 | IV. 결론 및 제언 |
| | 참고문헌 |

〈Abstract〉

This thesis researched for the conservation of a suit of armor, one glove, one belt, and one knife case that General Jung, Gong-chung had been worn in the early 17th centuries. The armor was Doojung-kab for the battle. It was made of two kinds of fabrics, one of them was silk satin's outer fabrics, the other was quilted cotton's lining. As the armor was made of silk and cotton, it was treated by dry solvents and dry soap. In the dry cleaning method, used solvents were n-hexane, cyclohexane, benzene, and n-decane. The volume ratio of dry soap was 120: 1. The reaction temperature was 30°C, and reaction time was 10 to 30 minutes per one turn. The glove, belt and knife case were made with leather. They were dipped on the polyethyleneglycol 150 saturated solution during 24hours at 50°C and then dried naturally. They were washed by toluene to remove the untreated P.E.G. on the surfaces. It was sterilized by two gases of methylenebromide and ethyleneoxide. For the conservation, it was packed thoroughly by the polyethylene film sheet without air.

1. 서론

섬유류 문화재들은 주로 면, 삼베, 모시, 견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천연 염료를 사용하였다. 발굴 및 전시, 보관상에서의 부적절한 취급으로 인하여 대부분의 복식 유물들은 손상 및 열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특히 유기물질로 되어 있어 생물학적 피해를 입는 경우가 많다. 이 같은 보존 환경 내에서 복식 유물들은 염료의 퇴색, 재질의 약화, 지속적인 오염, 파손에 이르게 된다. 파손된 부분의 원형 복원은 불가능하므로 예방적인 보존 처리와 보수가 시급해진다. 본 연구는 1979년 1월에 중요민속자료로 지정된 선조 때 활약했던 정 공청(연대 미상: 16c.말-17c.초) 장군의 유품인 갑옷 1점, 장갑 1점, 혁대 1점, 칼집 1점에 대한 보존 처리를 실시하여 오염물의 세척, 부분 보수, 훈증처리하였으며 형태적 특징을 조사하였다. 이 유물들은 후손인 정 상권씨가 경북 경주시 평동 158 소재의 개인 집에서 소장하고 있었으며¹⁾ 후손의 요청과 문화재관리국의 조사에 의해 처리가 시급하다고 판단되어 1994년 가을부터 이듬해 봄까지 보존처리를 실시하였다.

II. 보존처리 과정

1. 유물의 보존 상태

정 공청 장군 유물은 후손 정 상권씨에 의해 경북 경주시 평동 158 개인 집의 철재 금고에 보관되어 있었으며 유물 수량에 비하여 금고가 작았다. 갑옷은 지정 당시부터 심하게 훼손되어 있었으며 갑옷 복제품을 제작하여 일반에게 관람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장갑 1점과 혁대 1건은 피혁제품으로 오랜 세월동안 경화되고 구부러져 있었으며 원형을 파악할 수 없을 정도로 훼손되어 있었다. 따라서 가죽 제품 유물들은 가지처리(加脂處理)를 실시하여 재질을 부드럽게 해 주고 부러짐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했다. 딱딱하고 건조해진 가죽에 유지를 주입하거나 표면에 도포하여 가죽의 유연성, 촉감, 매끄러움을 조절하는 것을 가지처리²⁾라고 하는데 가죽의 가

지는 마모 및 각종 건뢰도와 오염도에도 영향을 준다. 사용하는 유지의 종류는 천연유지, 광물성 기름 등을 쓰며 소량의 유지와 물, 유화제들로 fat liquor를 만들어 유화액으로 사용하기도 한다. 가지 처리에 사용하는 polyethyleneglycol(PEG)은 친수성 비이온계 물질로서 산, 알칼리, 금속염 유제의 영향을 받지 않으며 우수한 침투력이 있다.³⁾ 본 연구에서는 PEG 1500을 선택하여 50°C로 유지하고 24시간 전 기오븐에 넣어 부드러워질 때까지 잘 주물렀다.

2. 세제의 선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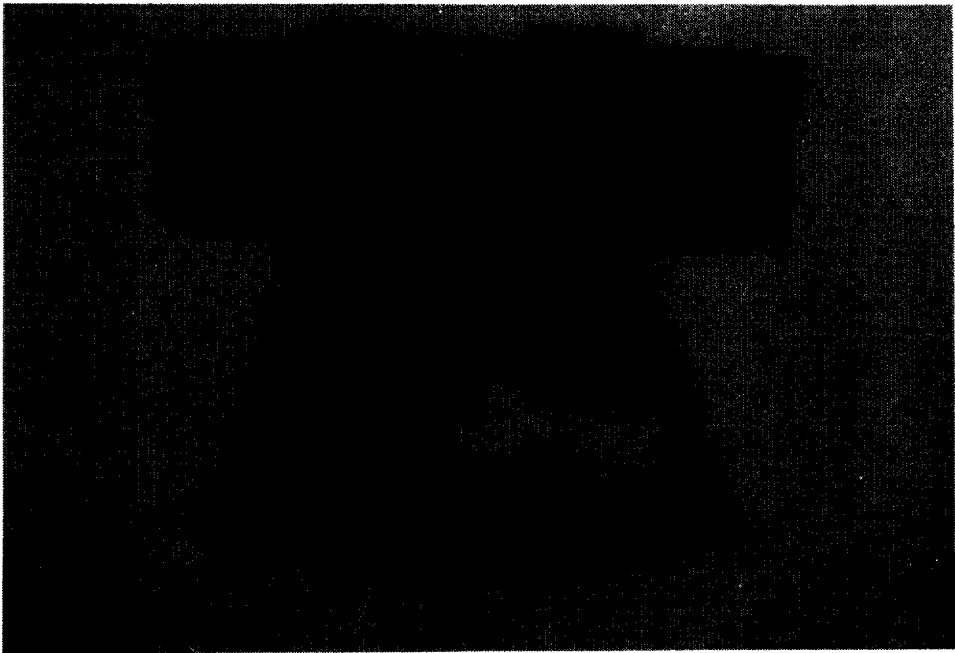
정 공청 장군 갑옷은 무명 심지와 겹, 안감이 단으로 되어 있어 습식세탁은 할 수 없는 상태였다. 직접 전투에서 사용하였으므로 혈흔이 남아 있었고 재질 또한 매우 약해서 dry soap을 이용한 건식세탁을 택하였다. halogen족 유기용매들은 독성이 강해서 유물에 남아 있을 경우 손상도가 크므로 탄화수소계 유기용매를 선택하였다. 이들은 탈지성이 우수하고 충분히 자연 건조시키면 유물 부착량을 가급적 줄일 수 있다. n-hexane은 세척에 이용되기에 충분히 비휘발적인 가장 가벼운 직쇄상의 탄화수소이다. n-decane은 값이 비싸고 탈지력이 부드러워 고급 건식세척에 사용되지만 탄소수가 길어서 건조시 시간이 오래 걸리므로⁴⁾ 단독 용매보다는 혼합해서 쓰는 것이 더욱 효과적이다. 방향족화합물중 benzene은 용제로 많이 쓰이나 증기가 독해서 역시 단일 용제로 선택은 피하고 혼합용제로 사용해야 한다.⁵⁾ cyclohexane은 고리형 탄화수소로 탈지력이 강하고 상온에서 취급하기 용이하며 benzene보다 덜 독하다.⁶⁾ 본 연구에서는 세척 제1단계에서 n-hexane을 사용하여 섬유를 팽윤시키고, 제2단계에서는 cyclohexane:n-decane:benzene=5:3:2 혼합용액으로 탈지시키고, 제3단계에서는 비이온계 dry cleaning soap을 cyclohexane:n-hexane=5:5(이상 무계비율) 혼합용액에 잘 풀어서 사용하고 마지막으로 n-hexane으로 헹구어 냈다.

3. 세척 및 보수 처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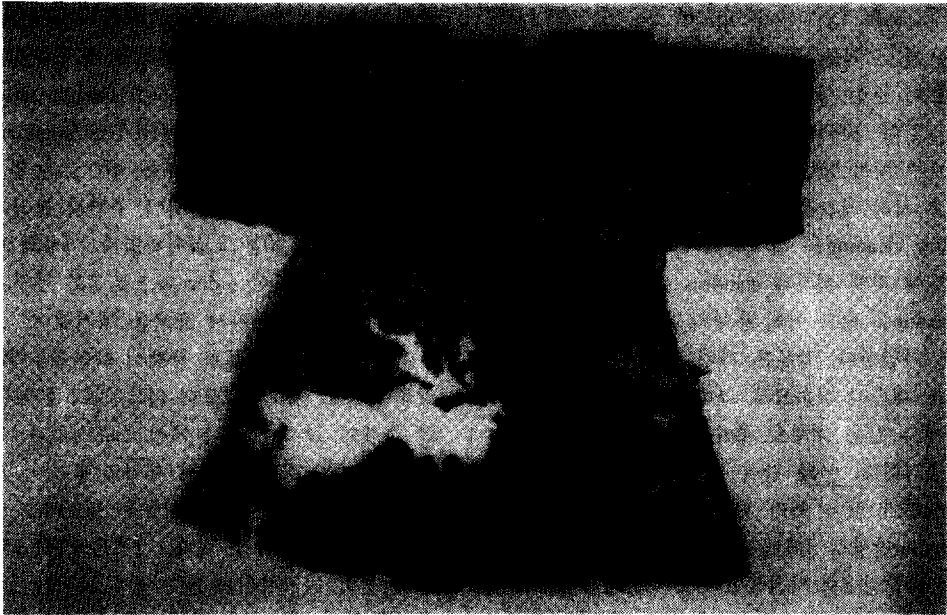
갑옷은 견, 모직물, 철제 견장 등 여러 종류로 구성되며 보존 상태가 너무 나빠서 세척 처리시 어려움이 컸다. 1993년도에 실시했던 정 충신 장군 갑옷의 보존 처리 방법을⁷⁾ 참고하여 이 경우 세척력을 높이고 처리 시간을 단축하기 위해서 dry soap을 이용한 dry cleaning을 실시하였다.⁸⁾ 견식 세탁 1단계로 용도에 맞게 제작된 stainless steel bath tube에 20L n-hexane을 넣고 처리 용액의 온도가 30℃에 도달하도록 가열한다. 갑옷은 자기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만큼 훼손이 심하므로 그대로 세탁 용제에 넣으면 용제가 갑옷 내부로 흡수되어 갑옷의 무게가 상당히 증가한다. 이와 같이 무게가 증가한 갑옷은 찢어질 염려가 있어 처리 과정중 다루기가 힘들다. 그래서 nylon망사로 3차례 감싸고 조심스럽게 다뤄 상온에서 10분간 2회 처리하였다. 2단계 처리법은 다음과 같다. cyclohexane:n-decane:benzene=5:3:2(weight ratio)로 섞은 혼합 용제에서 오염물 세척을 1단계와

같은 방법으로 10분간 실시하였다. 이상의 처리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단백질, 혈흔, 수용성오염 등을 제거하기 위해서 3단계 처리법을 실시하였다. 3단계에서는 cyclohexane:n-decane=1:1(weight ratio)용액에 비이온계 dry cleaning soap(Hi-Tech:Imported) 120:1(vol. ratio)을 잘풀어서 온도를 30℃로 높인 후 갑옷을 넣었다. 여러 차례 뒤집어 주면서 눌러 빨기 및 주물러 빨기를 30분간 실시하였다. 이상의 방법으로 2회 실시하고 다시 n-decane으로 2회 행군 후 두꺼운 백색 타올로 말아서 세액을 제거했다.

이상의 세척 과정들을 통해서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깨끗해졌으며 어느 정도 용제가 제거되면 통풍이 잘 되는 그늘에서 건조시킨다. 갑옷에서 떨어져 나온 징들은 다시 제자리에 박아 넣었으며 징 표면에 긴 푸른 녹은 청동을 보호하는 녹이므로 그대로 두었다. 장갑, 혁대, 칼집은 PEG 1500 sol'n에 완전히 침적시키고 50℃에서 24시간 동안 가지 처리를 한 후 흡수지를 장갑 안쪽에 넣고 여분의 PEG를 흡수시키고 바깥쪽을 잘 닦아낸다. 이러한 가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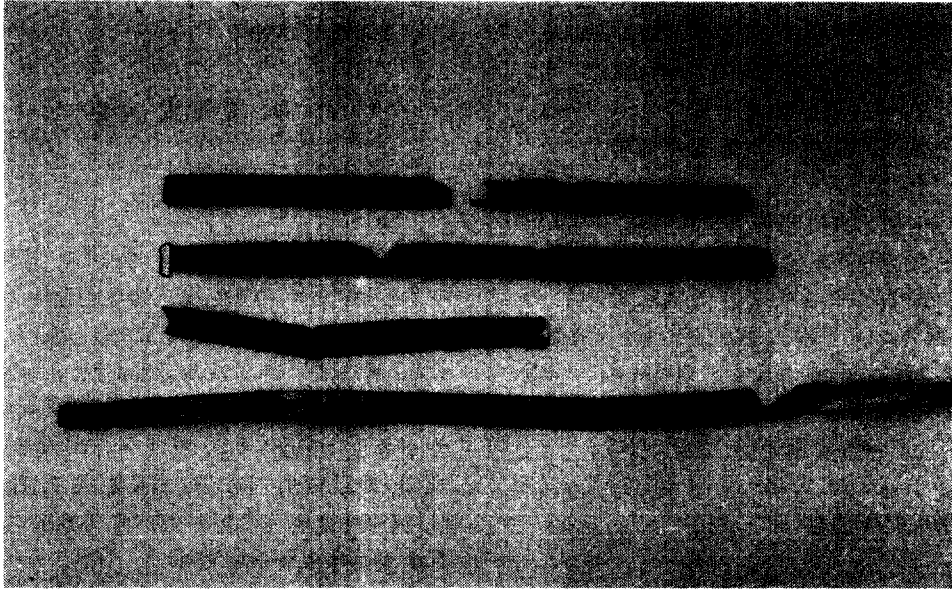
〈사진 1〉 정 공청 장군 갑옷의 보존 처리후 전면 상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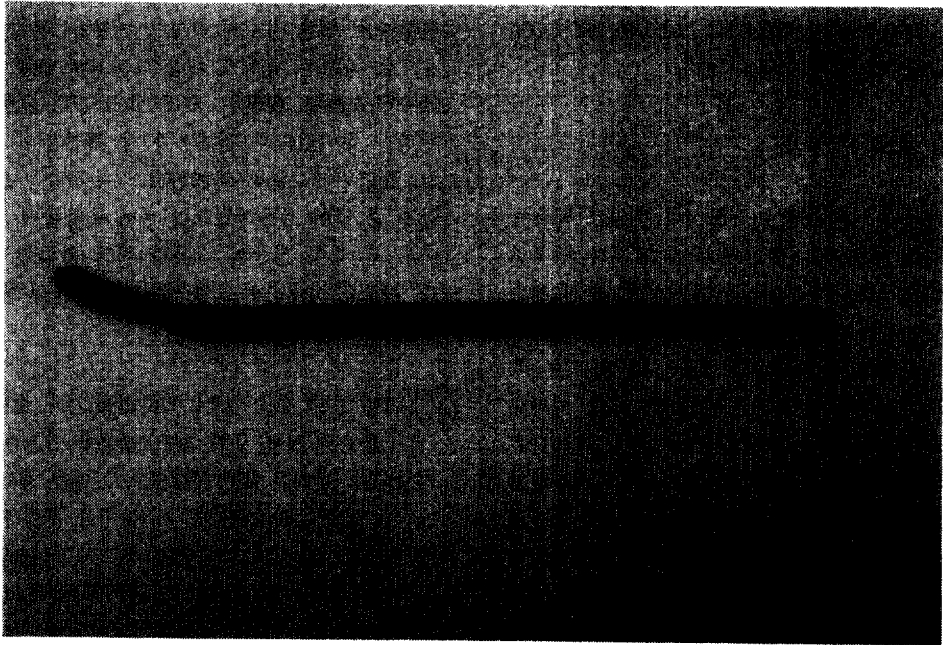
〈사진 2〉 정 공청 장군 갑옷의 보존처리후 후면 상태



〈사진 3〉 보존 처리 후의 장갑 형태



〈사진 4〉 보존 처리 후의 혁대 모습



〈사진 5〉 보존 처리 후의 칼집 상태

치리로 인하여 피혁 유물들은 재질의 유연성을 회복하고 오염물이 제거되었다. 자연 건조가 완전히 끝난 후 부드러운 스펀지를 이용하여 표면을 toluene으로 닦아서 표면에 부착된 PEG를 제거하였다.

4. 용해법과 현미경법에 의한 섬유 감별

중요민속자료 38호에 대한 보고서⁹⁾에는 심지로 쓰인 섬유는 면섬유이고 겉, 안감은 견섬유인 것으로 기록되어 있어 이에 대한 확인 작업을 하였다. 5% NaOH 용액 20cc(덕산화학 제품), 35% 염산용액 20cc(덕산화학 1급 시약)에 유물에서 떨어져 나온 직물 조각들을 종류 별로 용해시켰다. 현미경법(일본, MEIJ)은 배율 40배와 100배로 관찰하였다.

5. 섬유의 미세 관찰

세척 전, 후의 갑옷에서 동일한 시료를 잘라낼 수 없었으므로 세척 전에 분리되어 나온 시료와 세척 후의 시료를 비교하여 S.E.M.에 의한 미세 관찰을 하여 오염의 제거 정도와 직물의 조직을 검사하였다. 사용한 S.E.M.은 일본전자(JEOL)의 JSM-5200, JFC-1100E 과 PHILIPS 515 (Netherland) 였다.

6. 훈증 및 보관 처리

섬유 표면에 잔존하는 미생물이나 충란의 피해를 막기 위하여 훈증제로 많이 쓰이며 효과가 양호한 methylbromide 86%+ ethyleneoxide 14%의 혼합 가스를 사용하였다.¹⁰⁾ 처리가 끝난 유물들은 유물상자에 넣고 두께 0.3mm polyethylene vinyl 2겹으로 씌운 후 훈증제를 가스주입용 호스로 처음에 입방 미터당 100g을 넣었다. 날씨가 온화할 경우 24시간이면 효과가 나타나지만 12월에 실시하였으므로(12월 평균 기온 1.9℃)¹¹⁾ 60ppm으로 유지하면서 72시간 실시하였다. 건의 광산화를 막기 위해 산소와의 접촉을 방지하고 습기에 의한 피해와 생물학적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¹²⁾ 두께 15micron의 이축연신필름으로 밀폐포장하였다.¹³⁾ 장기간의 포장을 용이하게 하기 위

해서 보관용 대형 오동나무 상자를 150x100x15cm로 제작하여 접힌 부분을 가급적 작게 하고 적절한 공간을 유지하게 하였다.

III. 결과 및 고찰

1. 갑옷의 형태적 특징

정 공청 장군은 선조 때의 장군으로 임진왜란때 부자가 출전하여 부친은 장군으로, 아들은 수군절제사로 광해군 6년(1614) 9월에 교지를 받았다. 선무공신록권에 의하면 부친인 장군은 1등공신, 아들인 수군절제사는 2등공신으로 기록되어 있다고 하였다. 현존 유품은 선무공신록권, 혁대 여러점, 일본도 모양의 칼, 화살 56점, 사령기의 나무봉, 투구, 갑옷이 있다. 이 유물들은 중요민속자료 제 38호로 지정되어 현재 후손이 보관중에 있다.

갑옷은 甲冑, 또는 介冑의 일부로 이는 갑옷과 투구를 이르며¹⁴⁾ 갑옷을 만드는 법은 步軍의것은 길게 하였고, 馬軍의 것은 짧게 하였으며, 弓手의 것은 너그럽고, 槍手의 것은 좁게 하여 쓰임에 따라 재도가 달랐다.¹⁵⁾ 또한 갑주의 용도는 전투용, 훈련용, 의식용으로 나누며, 종류도 매우 다양하여 短甲, 鑊幡甲, 鎖子甲, 水銀甲, 柳葉甲, 皮甲, 黃頭釘甲, 豆錫鱗甲, 두정갑 등이 있다.¹⁶⁾ 전래유물 중 鐵皮甲이 가장 많고, 豆釘甲이 2위를 차지한다.¹⁷⁾ 두정갑은 조선시대 갑옷 중 많이 사용하였으며 전래 유물들이 몇 점 있어서 정 공청 장군의 갑옷과 비교 분석할 수 있었다. 이들을 시대순으로 열거하고 갑옷들의 형태와 특징들을 살펴보았다.

1) 정 충신 장군 갑옷(576-1636: 17c 초)¹⁸⁾

이 갑옷은 옆에 무가 있고 앞살이 있으며 두루마기형이다. 겉감은 黃色雲寶緞으로 매우 화려했으며, 안감은 緋黃色雲紋緞이며 속 심지는 무명 3겹을 호아 누볐다. 단령과 좌입이며 총길이 114cm로 무릎을 가릴 정도이고 소매는 팔꿈치에 닿을 정도였다. 두석제 두정의 지름은 1.8cm였고, 뒤에 지름 5.4cm의 큰 두정이 5개가 있었고, 肩鐵을 양 어깨에 등 중

양선을 중심으로 달았다. 견철의 중간 부분에 경첩이 있어 어깨를 지지하고 동작의 편리함을 주었다.

2) 총렬사 소장 갑옷 3점(16c말-17c초)¹⁹⁾

東來府使의 갑옷은 적색으로 길이 115cm, 진동 53cm였고 소매 배래와 옆선을 20cm박은 것으로 보아 활동성을 고려하지 않았다. 두정은 의령, 앞술기에서 4.5-5.5cm떠어서 박았다. 오른쪽 어깨에 견철이 남아 있으며 지휘관으로서의 위엄을 나타내게 하였다.

釜山鎭僉使의 갑옷은 겉감이 감청색, 안감은 홍색이었고 총길이 110cm, 진동 63cm였다. 위의 갑옷과 비슷하나 두정의 시정방법이 달랐다. 동래부사 갑옷의 두정은 골고루 퍼져 있었는데 이 갑옷의 두정은 1/3씩 나뉘어서 중간에 10cm의 공간을 두고 박았다. 좌측에 견룡이 달려 있었고 앞자락과 단트임 부분에 모피를 덧댔다.

多大鎭僉使 갑옷은 겉감이 紅氈이고 안감은 옥색 명주이며 무명으로 심지를 댔고 철미늘로 연綴를 했다. 총길이는 조금 길어 125cm, 화장 64.5cm이며 깃둘레에 꽃장식을 댔고 전면의 두정은 소형, 대형 순으로 번갈아 댔다.

3) 이 봉상 장군 갑옷(1676-1728: 18c 초)²⁰⁾

원사와 부원사용이 있으며 형태의 차이는 크게 없는 듯 하다. 겉감은 모두 붉은색 氈인데 많이 헤어졌으며 흰 색 무명 심지를 누볐고, U자형 깃에 직배래, 합입형의 포형이다. 원사형은 鑰製豆釘과 鑰製豆兵을 박았으며, 부원사용은 황두정을 횡선으로 박았다. 의령 주위에 목단 장식이나 흑색 명주를 대었다.

4) 유물 제 2648 갑옷²¹⁾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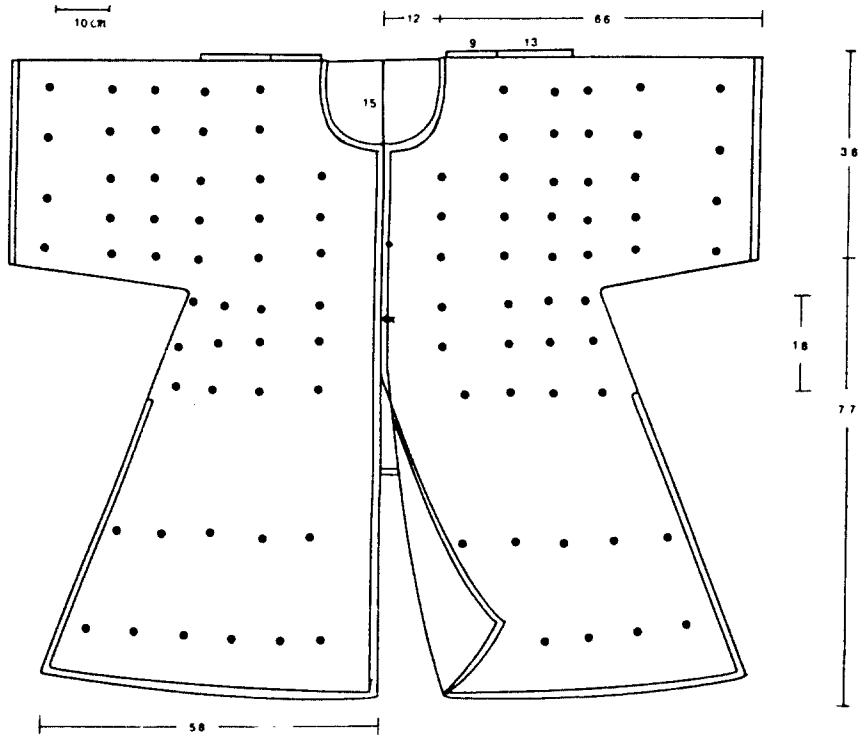
연대는 알 수 없으며 겉감은 황색 絨緞, 안감은 청색 명주이며 속 심지는 무명을 썼다. 합입의 소매 짧은 포형으로 좌우 겨드랑이와 뒷트임이 있다. 총 길이 102cm, 화장 61cm, 진동 36cm이고, 의령, 앞술기, 아랫단에 4.5cm의 끈색 용단이 대어져 있다. 가슴, 등, 어깨에 황두정을 시정했으며 앞단추가 3개 달려 있다.

5) 유물번호 2649 갑옷²²⁾

연대 미상이며 겉감에 毘沙門龜甲紋이 있으며 황색견을 썼고, 안감은 청색 명주이다. 역시 속심지는 무명이고 합입의 허리정도의 길이로 전래 유물 중 제일 짧았다. 가슴과 등 중앙에 원형의 龍補가 있었다. 좌우에 옆트임이 있으며 징검수를 이용하여 금사로 수를 놓았고 황두정을 옷 전면에서 사선으로 박았고 단과 술기는 직선으로 박았다. 매우 단조롭고 하의가 없어서 전체적인 분위기를 파악할 수 없는 아쉬움이 있었다.

6) 정 공칭 장군 갑옷(17c 초)

정 공칭 장군갑옷 역시 두정갑의 형태로 목면 두 겹을 1.5cm간격으로 누벼서 심지를 하고 겉감은 현록색 운문단으로 안감은 봉황과 모란 무늬가 있는 얇은 단종류이나 변색되어 갈색을 띠고 있으며 평직 견직물의 사용이 확인되었다. 목둘레는 둥근 형이고 깃은 없으며 여밈은 합입이다. 소매의 모양은 수구가 진동보다 좁고 진동 아래 18cm부터 트임이 있어 앞길 트임은 55cm, 뒷길 트임은 13cm이다. 앞자락에 비해 뒷자락이 상당히 짧는데 그 이유로는 이 갑옷이 전투용으로 직접 전쟁에서 입었기 때문에 말 위에서의 활동의 편리함을 위해서 다른 갑옷들은 주로 뒷트임을 썼지만 이 갑옷에서는 뒷자락을 짧게 제도한 것으로 사료된다. 갑옷의 형태는 포와 같지만 쇠이나 무는 없다. 이와 비교하여 유일하게 쇠과 무가 있는 갑옷은 정 충신 장군의 갑옷이었다. 수구, 트임부분, 옷단, 북, 앞길의 가장자리에 나비 1cm의 가죽으로 파이핑하였다. 옷의 품은 넉넉하고 양 어깨에는 직사각형의 견철이 있었으며 앞뒤 술기를 중심으로 달았고 행동의 편리함을 위하여 중간 부분이 꺾이게 되어 있었다. 안에는 겉감으로 심을 댔고 여밈은 매듭을 사용했는데 15cm간격으로 길이 3cm의 매듭 고리와 낫쇠단추가 달려 있지만, 현재는 1개만 있다. 2cm 지름의 낫쇠징을 상부는 6.5-7cm, 하부는 15-25cm정도 사이를 두고 박았다. 앞품 34cm, 뒷품 74cm, 수구 36cm, 화장 66cm, 소매 길이 54cm, 고대 24cm, 앞길이 113cm, 뒷길이 74cm, 앞길 도련 62cm, 뒷도련 94cm, 목둘레 길이 15cm, 견장길이



〈그림 1〉 갑옷 전면 실측도

22cm이다.

앞서 설명한 갑옷들을 비교해 보면 18세기까지의 두정갑은 겹, 안갑과 무명 심지를 사용하여 보온성을 주었으며 어깨에 견철을 달아 위엄을 과시하였다. 여밈은 좌임이던 것이 17세기이후에 함임으로 되었으며 장식 효과를 주기 위해 의령 주의, 앞 솔기 아랫단등에 선을 덧대기도 하였다. 행동의 자유로움을 주기 위해서 옆트임을 사용하였다. 정 공청 장군의 갑옷은 트임 없이 뒷자락을 짧게 하여 편리함을 주었고 같은 연대의 정 충신 장군의 갑옷에서도 장식선의 사용이 없었던 것으로 보아 장식선을 반드시 사용하지는 않았으며 오히려 장군의 갑옷이 더 검소하고 단순했던 것으로 생각된다. 갑옷의 형태는 〈그림 1,2〉에서 제시하였다. 옷의 거드랑이와 목 둘레에 부착했을 것으로 보이는 부속물 3점이 있다. 장갑은 길이 18cm, 팔목 지름 11.5cm이며 엄지 손가락에 빨 깎지가 붙어 있어 견고함을 부여했으며, 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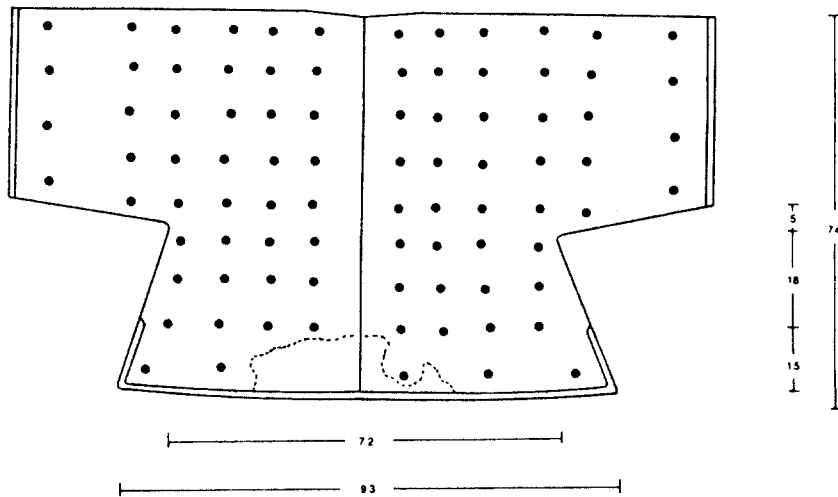
대는 백색 생피로 띠돈을 오려 붙인 검정색 가죽 혁대와 생피로 만든 백색 혁대가 있고 가죽 칼집은 가지 처리 후 매우 부드러워졌다.

2. 섬유 감별

유물에서 분리되어 나온 시료들을 증류수로 닦은 후 24시간 실온에서 자연 건조 시킨 후 20℃에서 35% 염산 용액과, 5% NaOH 용액 20cc에 넣어 5분간 유리막대로 저어 용해성을 비교하였다. 시험 결과는 다음과 같다.

시료 종류	무게(g)	염산 용액(35%)	NaOH 용액(5%)
A	0.12	용해	불용
B	0.14	불용	용해
C	0.11	불용	용해

시료들의 무게가 각기 다른 이유는 가급적 크기가



〈그림 2〉 갑옷 후면 실측도

비슷한 시료들을 골라서 썼으나 유물에서 분리된 상태의 시료들을 그대로 썼기 때문에 서로 달랐다. 시료 A는 심지로 사용되었던 직물조각으로 염산에서 용해되고 NaOH에서 불용해되므로 면, 마섬유 중 하나로 판명되었으며, 시료 B,C는 유물 본체에서 분리된 것으로서 염산에서 불용해, NaOH에서 용해되므로 모, 견직물로 밝혀졌다. 현미경에 의한 측면 관찰 결과, A섬유에는 느슨하게 풀어진 꼬임이 있으며, B와C에서는 표면이 매끄러운 직선상을 나타내므로 A섬유는 면섬유이고, B,C섬유는 견섬유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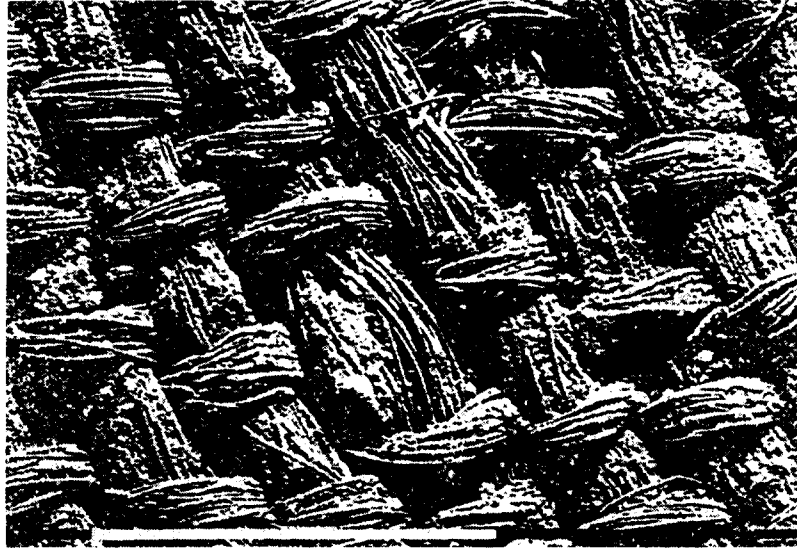
3. S.E.M.에 의한 섬유 미세관찰

세탁전의 유물에서 분리되었던 시료 중 견 평직을 선택하여 미세관찰한 바 오염물의 부착이 매우 심했다.〈사진 6〉 실 표면 뿐만 아니라 실 사이에도 오염이 부착되어 있었다. 세척 후의 사진들〈사진 7,8,9〉과 비교해 보면, 〈사진 7〉에서는 섬유 표면(중앙의 흰 부분)에 오염의 부착이 확인되었을 뿐 다른 부위에서는 현저하게 깨끗해졌음을 알 수 있다. 유물 본체로 사용되었던 직물의 종류로는 견 평직과 견 수자직으로서 표면에 오염의 부착이 눈에 띄지 않을

만큼 깨끗하였다. 심지로는 면 평직이 사용되었고, 〈사진 8〉의 왼쪽 윗부분과 중간의 float부분에서 옅은 바탕색과 진한 색의 두 종류의 섬유를 발견할 수 있었다. 따라서 안감으로 사용되었던 견직물은 색상 차이가 뚜렷해서 한 종류의 색실이 탈색된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사진 9〉는 또 다른 견직물의 조직을 나타내는데 평직을 이루고 있었으며 섬유가 많이 풀려 있었다. 이로써 심지로 사용되었던 면 평직과 견 수자직 뿐 아니라 견 평직이 사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IV. 결론 및 제언

정 공청 장군 갑옷은 조선시대 17C 초반의 것으로 두정갑이며 목면 2겹을 심지로 하여 누빈 간격이 1.5 cm로 다른 갑옷들에 비해서 비교적 촘촘하게 누볐다. 평직의 견직물의 사용이 확인되었고 안감에 사용된 견직물은 2가지 색사를 이용하여 직조를 했으며 단령의 함임으로 수구가 진동보다 좁았고 앞 뒷 길의 차이가 컸다. 뒷 길이 짧은 이유로는 직접 전투에서 착용되었던 바 말 위에서의 행동의 편리함을 위해 제도한 것으로 생각된다. 여밈은 매듭을 사용하여 매듭 고리와 낫쇠 단추가 있었고 실용성을 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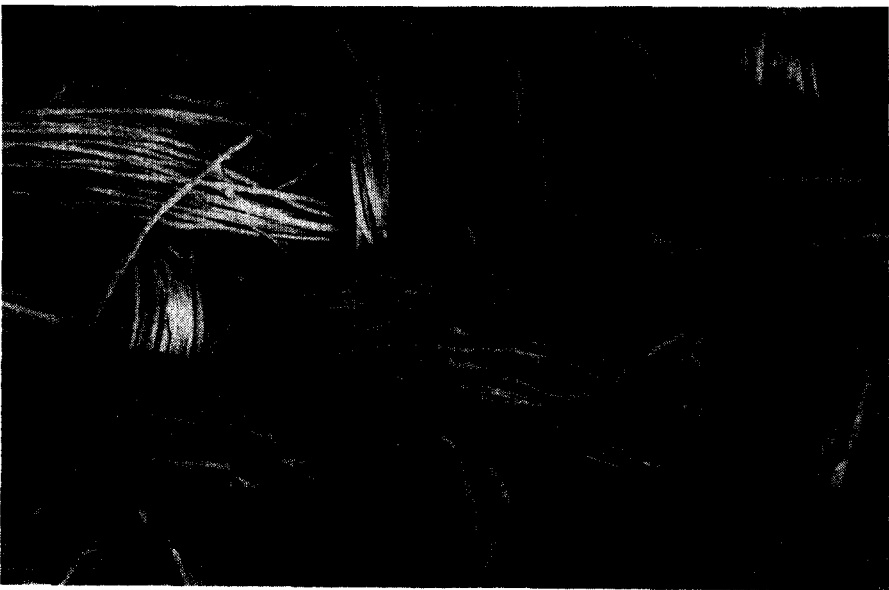
〈사진 6〉 세척 전의 견 평직물(60배)



〈사진 7〉 심지로 사용된 면직물(100배 확대)



〈사진 8〉 안감으로 사용된 견직물(100배 확대)



〈사진 9〉 갑옷에서 분리된 견 평직물(100배 확대)

목적으로 하여 다른 갑옷과는 달리 의령부분의 장식이나 따로 덧댄 모피띠, 우단 테두리등의 화려한 장식이 없었다. 장갑에는 엄지 손가락에 뿔까치가 있어 실용성과 견고함을 부여하였고 장갑, 혁대, 가죽 칼집은 가지처리 후 매우 부드러워졌다. 섬유와 피혁으로 된 복식 유물들은 전시 및 보관중 환경적 요인들에 의해서 취화 및 오염이 진행되며, 원상으로 복원될 수 없는 문제점이 있다. 특히 섬유 내부에서 진행되고 있는 손상에 대해서는 보수 처리를 할 수 없으며 현재 행해지는 예방적 대책은 오염의 제거를 위한 세척과 부분적인 보수, 복제품의 전시에 한정되어 있다. 앞으로 좀 더 과학적인 보존 처리과정의 연구 발전과 전시 및 보관중 기타의 유물보다 세심하고 정확한 환경 조건을 제시하여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힘써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참 고 문 헌】

- 1) 지정문화재목록, 문화재관리국, 1980, 198-199.
- 2) 송 계원 외, 피혁과 모피의 과학, 선진문화사, 1992, 153-159.
- 3) Jentina E. Leene, Textile Conservation, IIC, London & Butterworths, 1972, 251.
- 4) 김 성련, 세제와 세탁의 과학, 교문사, 1990, 224.
- 5) Jentina E. Leene, Textile Conservation, IIC, London & Butterworths, 1972, 50.
- 6) The Conservation Unit, Science for Conservators, Vol.II. 1994, 50.ss.
- 7) 배 상경, 정 충신 장군 갑옷과 울산 이휴정 소장 봉황문단 직령포에 실시한 보존처리 연구, 보존과학회지, 제 3권, 제 1호, 1994, 23-30.
- 8) 김 성련, 세제와 세탁의 과학, 교문사, 1990, 237-239.
- 9) 중요민속자료 복식보고서 (1992-1994), 문화재관리국, 1995, 86-87.
- 10) Jentina E. Leene, Textile Conservation, IIC, London & Butterworths, 1972, 90-92.
- 11) 최 석철 외, 피복위생학, 형설출판사, 1989, 389.
- 12) Jentina E. Leene, Textile Conservation, IIC, London & Butterworths, 1972, 109-110.
- 13) 안 회균 외, 중요민속자료 제 112호 장홍임씨 수의류의 보존 처리, 보존과학연구, 제 6집, 문화재관리국, 1985, 111. 9.
- 14) 임 명미, 개주와 군복과 용복에 관한 연구, 의류학회지, Vol.3, No.1, 한국의류학회, 1979, 32.
- 15) 이 강철, 한국의 갑주, 고고미술, 143-144호, 한국미술사학회, 1980, 22.
- 16) 조선시대 궁중복식, 문화재공보부문화재관리국, 1981, 111.
- 17) 이 미나, 갑옷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1983.
- 18) 이 강철, 한국의 갑주 -정 충신 장군의 갑주와 충렬사 소장 갑주를 중심으로-, 복식 제 5호, 한국복식학회, 1981, 26-27.
- 19) 전계서, 28-29.
- 20) 이 강철, 한국의 갑주 소고, 고고미술, 136-137호, 한국미술사학회 1978, 228-229.
- 21) 조선시대 궁중복식, 문화공보부 문화재관리국, 1981, 112.
- 22) 전계서, 113.